

물, 자연 그리고 사람

Vol.668

11월 16일 K-water가 창립 56주년을 맞이합니다.
만세기 넘게 살아온린 역량으로 국민이 더 안전한
새로운 물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2023년 11월호



김포 정릉



K-water가 원팀 코리아의 일원으로
가장 먼저 우크라이나 도시 재건에 나섭니다.
댐을 복구하고 상하수도 인프라와 정수 처리 시설 등을 재건하며,
평화로운 일상을 위한 희망을 새롭게 채웁니다.





kwater__official

#kwater우크라이나도시재건 좋아요 이벤트

지금 인스타그램에서
#kwater우크라이나도시재건을 검색하고
<#kwater우크라이나도시재건 좋아요> 이벤트
게시물에 '좋아요'와 '응원 메시지'를 댓글로 남기면
이벤트에 자동 응모됩니다.

참여방법 인스타그램에서
#kwater우크라이나도시재건을 검색
→ <#kwater우크라이나도시재건 좋아요>
이벤트 게시물에 '좋아요'와
'응원 메시지'를 댓글로 남기기

이벤트 경품 커피 음료 기프트콘 10명
접수 마감일 11월 20일
선물 발송일 12월 10일경

※ 12월 15일까지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은
02-6731-0785로 전화주세요.



#원팀코리아





#우크라이나도시재건



#창립56주년



MOU Signing Ceremony
between K-water & EBRD

September 22, 2023



#K-물기술



CONTENTS

K-water Monthly Magazine

2023. 11 | Vol. 668



창간일 1968년 1월
발행일 2023년 11월 1일
통 권 668호
편 집 홍보실
발행처 K-water(www.kwater.or.kr)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제작·대행·인쇄 큐라인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K-water에서 발행하는 물 전문 매거진입니다.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 강령과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이 책에 게재된 글은 K-water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친환경 식물성 원료인 콩기름과 친환경 용지를 사용해서 인쇄했습니다.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을 카카오톡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 08 제로여행**
역사의 아픈 흔적을 보듬고
유유히 흐르는 물길, 경기 김포
- 14 제로픽**
낭만 가득한 선셋 시티
김포 에코 여행
- 16 제로라이프**
지금 지구는 무라벨 시대!
- 18 사람이 애쓰지(ESG)**
미래를 그리는 손길, 만화로 그리는 희망
구희 작가
- 22 지구보고서**
평년보다 대체로 따뜻,
올겨울 날씨 기후 전망
- 24 친환경 지구여행**
자연과 더불어 행복한 물의 나라
스웨덴
- 28 두잇두잇**
K-water 여가선용부 수도권FC의
기본 기술 팁
- 30 건강처방전**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의 우측 상단에는 시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보이스아이(음성 변환 바코드)가 삽입돼 있으며, 스마트폰 앱 스토어에서 보이스아이 앱을 무료로 다운로드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 QR 코드를 스캔하면 글을 읽어서 들려주고, 60여 개 언어로도 번역을 지원합니다.



32 수(水)타벽스가 간다
 화목함으로 물드는 따뜻한 사람들,
 금강경영처와의 만남

36 K-water 리포트
 우리 물 기술로
 우크라이나를 다시 세웁니다



40 K-water ESG
 채권발행 30년 결실 '그린본드 발행 성공'
 친환경 프로젝트에 앞장섭니다

42 어느 멋진 날
 나다운 나를 찾아가는 여정
 메이크업 원데이 클래스

46 마음상담소
 상사와 동료의 칭찬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48 오프챌린지
 조금 불편해도 괜찮아!
 일회용품 OFF

49 이슈체크
 전 세계가 주목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50 K-water 창립 56주년
 수능 이벤트에 참여하고
 선물 받아주세요!

52 K-water 포커스 ①
 소양강댐 50소에
 어서오십시오!

54 K-water 포커스 ②
 활성탄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힘을 모으다

56 K-water News

58 수놓은 문화

60 챌린지 릴레이

62 K-water SNS





역사의 아픈 흔적을 보듬고

유유히 흐르는 물길



경기 김포



예로부터 서해의 관문으로 불렸던 김포로 가을 여행을 떠나보자. 유구한 역사와 생태의 보고로 기록되는 김포의 매력에 빠져볼 것. 운치 있는 낙조의 매력까지 더해 그야말로 이국적인 여행지가 펼쳐진다.

글·사진_최갑수(여행작가) 일러스트_이신혜



문수산 정상에서 바라본 김포 전경



서해의 관문이자 한양을 지키는 요충지

김포는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의 세 강줄기가 하나로 합쳐져 서해로 흘러가는 관문이었다. 김포 북쪽 끝자락에서 이를 굽어 볼 수 있는 곳이 있다. 154m 높이의 야트막한 산봉우리인, 애기봉. 애기봉에서 강 건너를 보면 황해북도 개풍군이다. 거리가 1.4km밖에 되지 않아, 이곳에 오르면 김포가 왜 외적을 지키는 최전방이었는지 알 수 있다. 서해를 통해 침입하는 외적은 이곳을 지나지 않으면 한강으로 들어올 수 없었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남북이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던 154고지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애기봉에 방문한다면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을

추천한다. 기존의 노후화된 애기봉 전망대를 철거하고 2021년에 평화생태전시관, 조강전망대, 생태탐방로를 조성해 새롭게 단장했다. 세계적인 건축가 승효상 씨가 설계한 건축물과 주변의 자연경관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평화가 가진 다양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공간이다.

애기봉을 둘러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조강 전망대에 닿는다. 루프탑에 설치된 망원경을 통해 들여다보면 조강 너머 황해북도 개풍군 선전마을 일대가 또렷하고, 건물과 초소 등이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보인다. 공원은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 있으므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방문이 가능하다.

애기봉에서 바라본 조강 전망



애기봉평화생태공원



김포의 젓줄로 통하는 '조강'

'김포'하면 바다와 가까워 강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다. 김포가 역사와 생태의 고장이라면, 조강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애기봉 앞을 흐르는 강의 이름이 바로 조강이다. 하성면 시암리와 월곶면 보구곶리 유도(留島)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강 및 임진강과 만나 서해로 흘러간다.

조강은 바다처럼 거대한 '큰 강'을 뜻한다. '할아버지 강'이라는 뜻과 한강의 모든 지류를 아우르는 '으뜸 강'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 조강에는 큰 나루가 하나 있다. 근처에는 100여 호가 사는 제법 번성한 마을도 있었다. 한국전쟁 전까지는 이 마을과 나루를 중심으로 한강 하구의 수운과 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하지만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정전협정에서 이곳이 '한강하구 중립 수역'으로 지정되면서 출입이 엄격히 제한됐다. 사람의 발길이 끊어진지 이미 오래라는 이야기다.

사람의 발길이 끊긴 뒤, 조강은 전쟁의 상흔을 치유했고 자연의 섭리를 회복했다. 지금은 생태계의 보고로 기록되고 있으며,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번식한다. 인간의 비극이 자연에게는 기회가 된 셈이다.

걸으며 김포를 여행하는 방법

김포를 제대로 여행하고 싶다면 평화누리길을 걸어보길 권한다. 김포에는 평화누리길 1~3코스가 지나는데, 김포의 생태와 역사, 문화를 두루 살필 수 있다. 평화누리길 1코스는 철책을 따라 논길과 산길이 어우러져 있고, 평화누리길 2코스는 산성을 따라



산길을 오르내린다. 평화누리길 3코스가 애기봉 입구에서 시작한다. 마근포리 마을회관과 한강하류 재두루미도래지, 석탄배수펌프장을 지나 전류리포구까지 이어진다. 철책 너머로 유유히 흐르는 한강과 함께 걷는다.

1코스는 대명항에서 시작해 염화강 철책길을 따라 걷는다. 김포와 강화 사이를 흐르는 염하를 따라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에 철책선이 길게 늘어져 있다. 철책선이 쳐져 있지만, '강변 트레킹'이라 불릴 정도로 강과 산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다.

가장 먼저 가볼 만한 곳은 덕포진이다. 한양으로 통하는 바닷길의 한가운데 자리 잡은 덕포진은 강화도와 마주 보고 있는 강화 해협 가운데서도 폭이 가장 좁은 곳이다. 조선시대에는 300

여행고수가 알려주는 김포 이모저모



걸포중앙공원

김포시 걸포동에 있는 근린공원으로 김포 시민들의 휴식처로 자리 잡았다. 계절 따라 바뀌는 아름다운 풍경과 오래된 건축물, 어린이 놀이터, 산책로, 운동시설 등 쉬며 즐길거리가 풍성하다.

☞ 주소 경기 김포시 모담공원로 170

명이 넘는 병사가 주둔했던 군영이 있기도 했다. 병인양요(1866년) 때는 프랑스 군함을 맞아 싸웠고, 신미양요 때는(1871년) 때는 미군 군함과 맞서 수많은 희생자를 냈다. 병인양요 때 프랑스 군은 이 길을 지나 강화도를 침략해 강화도 외규장각 도서 등을 훔쳐 달아났다. 지난 2011년 프랑스는 그때 약탈해 간 외규장각 도서 297권을 돌려주었다.

신미양요는 미국 상선 제너럴셔먼호가 대동강에서 군과 민의 공격으로 불타버리자 이를 문제 삼아 미군 함대가 급파되면서 일어났다. 미군 함대는 강화해협 측량을 한다며 강화해협으로 들어섰고 이때 서로 간에 맹렬한 포격전이 벌어졌다. 미군은 강화군 길상면의 초지진에 상륙했고, 이 과정에서 아군 53명이 전사하고 미군도 3명이 전사하고 10여 명이 다치는 등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결국 조선군은 미국군을 40여 일 만에 조선 땅에서 내쫓았다. 이후 기세가 등등해진 대원군은 전국에 척화비를 세우고 더욱 쇄국정책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

2코스는 조강철책길에는 문수산성이 위치한다. 병인양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으로, 문수산성 전투에서 이긴 프랑스군이 점령했던 곳이다. 해발고도 376m의 문수산은 사계절 경



대명항



53 덕포진 교육박물관



치가 아름다워 김포의 금강산이라 불린다. 문수산 정상은 장수가 군사를 지휘했던 곳인데 한국전쟁 이후 군용 헬기장으로 쓰이던 걸 지난해에 복원했다.

김포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덕포진에서 20~30분 걸으면 바다와 닿은 대명항이다. 포구는 100여 척의 어선들이 오가며 분주한 풍경을 빚어낸다. 연안어업을 하고 어판장에서 직접 해산물을 판매하는 김포 유일의 지방어항이다. 봄이면 밴댕이와 주꾸미가 많이 올라오고, 가을이면 살찐 꽃게를 잡아 올린다. 주말 나들이를 가기 좋은 곳으로 갯 잡은 해산물을 싣고 내리는 어민들이 모습이 볼 만하다. 대명항 어시장은 꽃게를 비롯해 대하, 주꾸미 등 각종 신선한 해산물이 모이는데, 특히 김장용 새우젓과 멸치젓으로 유명하다. 대명포구에서 덕포진 교육박물관이 가깝다. 초지대교를 건너기 바로 직전에 있는 이곳은 1960~1970년대의 초등학교 모습을 재현해 놓았다. '전과의 왕 동아전과'도 있고 원더우먼이 그려진 양은도 시라도 있다. 오랜만에 보는 연필이며, 필통 등 학용품들이 반갑다. 풍금도 있다. 건반을 꼭 눌러본다. 옛 고등학교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옛 추억과 그보다 더 오랜 역사, 곳곳에 쉬어갈 초록의 공원과 풍성한 바다, 강까지. 이곳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추억을 더듬고 새로운 추억을 만든다. 김포는 그런 곳이다. 오랜 역사와 추억, 이야기 그리고 오늘의 낭만과 미래가 함께 있다.



문수산성

갑곶진과 함께 강화의 입구를 지키던 조선시대의 성이자 고종 3년(1866)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과 치열한 전투를 치른 곳이다. 잘 다듬어진 돌로 견고하게 쌓았으며, 그 위에 몸을 숨기기 위한 방어시설인 '여장'이 있다. 현재 해안 쪽 성벽과 문루는 없어지고 마을이 되었으며, 산등성이를 연결한 성벽만 남아있다.

☞ 주소 경기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 산36-2



찾아가GO. 체험하GO

역사와 생태. 낭만의 도시 김포 여행 스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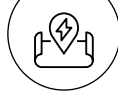


에코스텝 1 (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푸른 습지와 넓은 들판을 따라 걸으며 철새들과 조우할 수 있는 김포 속 생태 공간이다. 생태체험, 산책길 등으로 조성된 이곳은 수도권 최대의 생태공원이다. 철새들이 많이 찾는 반달형 농경지에 야생조류의 생태와 서식환경 보존 관리를 위해 만들었다. 큰 기러기, 쇠기러기, 재두루미 등을 볼 수 있다.

에코스텝 2 (하동천 생태탐방로)

하동천 생태탐방로는 소중한 우리 생물에게 서식처를 제공하고 종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자연 공간이다. 생물 관찰, 대단위의 연꽃 재배단지, 수변 황토길 등을 경험하며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다. 철새의 주요 서식지이기도 해 청둥오리, 재두루미 등을 볼 수 있다.



낭만 가득한 선셋 시티 김포 에코 여행

강과 바다, 생태의 보고로 기록되는 김포는 실로 다양한 매력을 지녔다. 김포가 건네는 운치와 낭만을 따라 두 발로 거닐며 만끽하는 가을 녀의 에코 여행 속으로.

글. 김영은 사진. 한국관광공사(한반도관광센터 비켄)

1



2



3



09:00 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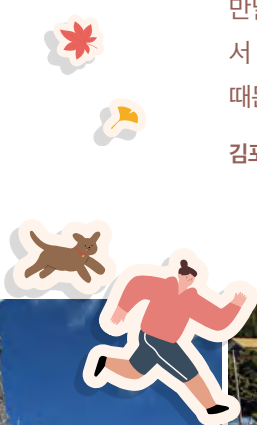
1

62년 전 함선에 오르는 특별한 경험

김포의 유명 여항인 대명항 바로 옆에 김포함상공원이 위치해 있다. 이곳은 62년간 바다를 지켜오다 퇴역한 상륙함(LST)을 활용해 조성한 수도권 최초의 함상공원이다. 아이들과 함께하기 좋기도 하고 어른들에게는 옛 동심이 담긴 배를 만날 수 있다. 1944년에 메사추세츠주 퀸사에서 건조되었던 운봉함을 전시장으로 개조했기 때문. 이곳에서는 직접 해군이 되어 보트도 타고

아바타 체험, 검색 키오스크 등을 통해 군사 지식을 습득하고 완전 군장 체험도 가능하다. 해군들이 실제 생활하던 선실을 재현한 공간도 있어 흥미롭고 색다른 체험이 가능하다. 특히 옛 함장실과 침실, 사관실 등이 그대로 남아있어 묘한 분위기가 연출될뿐더러 2차대전 그대로의 모습이 담겨있어 고풍스러운 공간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이 특별하다.

김포함상공원 주소 경기 김포시 대곶면 대명항1로 110-36
운영시간 09:00~18:00 동절기(11~2월), 설 명절 당일 휴무



2 13:00 p.m



다채로운 문화가 펼쳐지는 김포의 랜드마크

따사로운 가을 햇살을 받으며 아트빌리지를 산책해 보자. 김포 아트빌리지는 1980년대 초, 서울의 북촌과 을지로가 재개발되면서 김포에도 영향을 받아, 새롭게 자리 잡게 된 한옥마을이다. 2004년에 한강신도시 지구에 편입되면서 마을이 해체될 뻔했지만, 기존의 한옥마을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문화관광복합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이곳에는 각종 문화예술체험장과 아트센터 전시관, 야외공연장, 전통놀이체험마당 등이 조성되어 있어 다채로운 문화생활이 펼쳐지는 랜드마크로 통한다. 또 하나 특별한 시설이 있다면 바로 전통한옥 숙박을 체험할 수 있는 전통한옥 숙박체험관이 있다는 것. 예술단체가 창작의 나라를 펼칠 수 있는 다목적 홀, 아트센터, 야외공연장, VR(가상현실) 체험관 등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김포 아트빌리지 주소 경기 김포시 모담공원로 170
운영시간 09:00~18:00(월요일 휴관)

한국의 베네치아로 불리는 수변공원

김포 한강신도시인 장기동의 라베니체는 한국의 베네치아로 불리는 수변공원으로 잘 알려져 있다. 양쪽 건물 사이로 왕복 1.7km의 인공 수로가 흐르는 수변특화거리가 조성되어 있다. 금빛 수로를 따라 천변에 마련된 상가 거리는 밤이 되면 아름다운 조명으로 색을 입고, 수로를 오가는 문보트가 운영되어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문보트는 김포시에서 운영하며 예약(www.gimpo.go.kr)을 통해 탑승할 수 있다. 수로를 따라 조성된 아름다운 길과 녹지공원 등을 산책하며 가을밤을 만끽하자. 라베니체는 2021년에 유엔과 해비타트, 아시아 경관디자인학회 등 국내외 5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해 도시경관 조성의 모범적인 성과를 거둔 도시와 프로젝트에 수여하는 국제적 권위의 상인 아시아경관상을 받기도 했다.

라베니체 주소 경기 김포시 장기동 2028

3 16:00 p.m





생활 속 작은 곳에서부터 실천하는 지구 구하기. 오늘날 식품 포장 업계는 무라벨(無Label) 열풍이 한창이다. 무라벨 제품에 대한 정의부터 투명 페트병 재생원료 활용 사례, 올바른 분리배출법까지 한데 모았다.

글. 문수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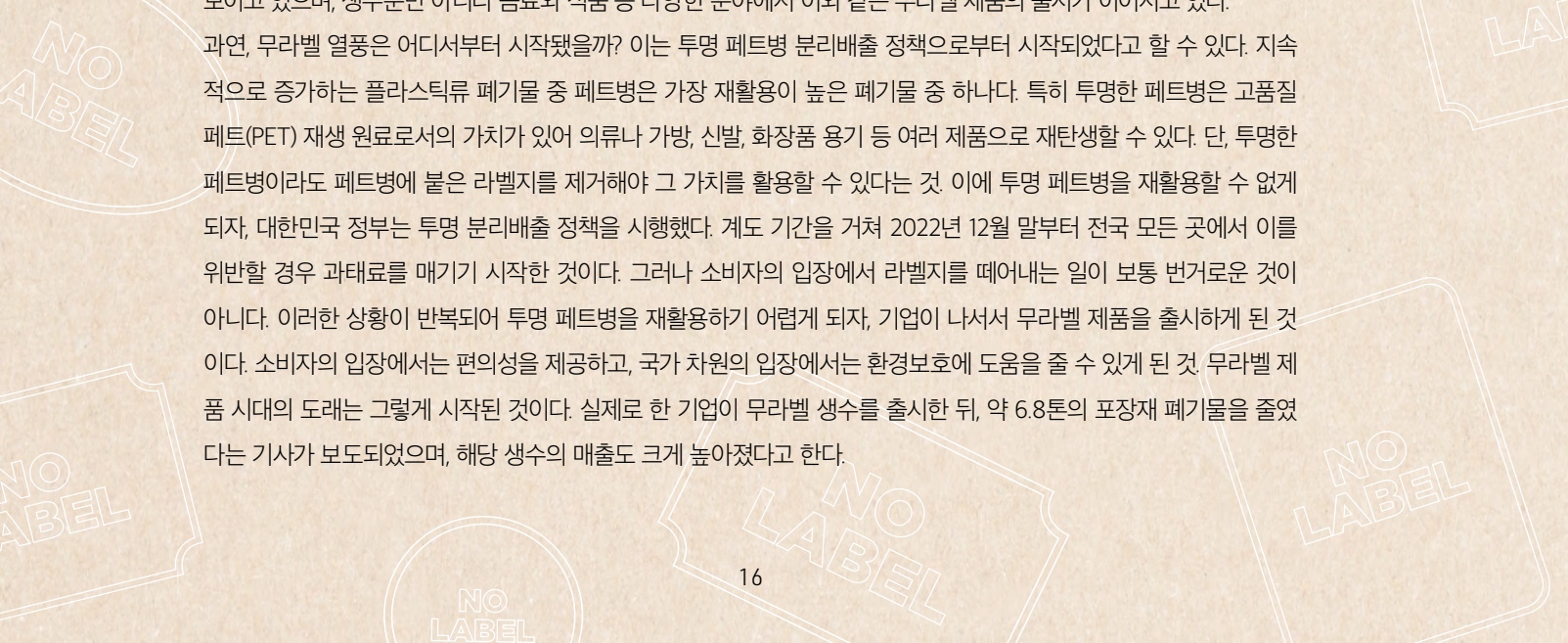
지금 지구는 무라벨 시대!



라벨 빼기, 환경 더하기

최근 식품 포장 업계는 '무라벨' 열풍이 불고 있다. '무라벨'은 말 그대로 음료 제품이나 식품 용기에 라벨이 없는 상태로 출시되는 것을 말한다. 제품명과 첨가물 등을 표시하기 위해 붙어있던 라벨을 없애고 제품 자체에 내용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무라벨 제품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 현재는 국내 시장점유율 3위 안에 꼽히는 생수 업계가 모두 무라벨 생수를 선보이고 있으며, 생수뿐만 아니라 음료와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와 같은 무라벨 제품의 출시가 이어지고 있다.

과연, 무라벨 열풍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이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정책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플라스틱류 폐기물 중 페트병은 가장 재활용이 높은 폐기물 중 하나다. 특히 투명한 페트병은 고품질 페트(PET) 재생 원료로서의 가치가 있어 의류나 가방, 신발, 화장품 용기 등 여러 제품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 단, 투명한 페트병이라도 페트병에 붙은 라벨지를 제거해야 그 가치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이에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할 수 없게 되자, 대한민국 정부는 투명 분리배출 정책을 시행했다. 계도 기간을 거쳐 2022년 12월 말부터 전국 모든 곳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매기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의 입장에서 라벨지를 떼어내는 일이 보통 번거로운 것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어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하기 어렵게 되자, 기업이 나서서 무라벨 제품을 출시하게 된 것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편의성을 제공하고, 국가 차원의 입장에서 환경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 무라벨 제품 시대의 도래는 그렇게 시작된 것이다. 실제로 한 기업이 무라벨 생수를 출시한 뒤, 약 6.8톤의 포장재 폐기물을 줄였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으며, 해당 생수의 매출도 크게 높아졌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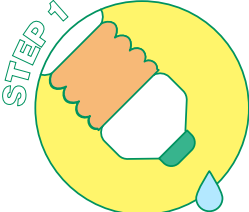




재생원료로 다시 태어나는 투명 페트병, 어디에 쓰일까?

환경부는 투명 페트병 재생원료의 수요 확대를 위해 식음료 제조업체 등과 함께 ‘올해 상반기 내 투명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제품 출시’를 선언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한국 코카콜라, 산수음료, 매일유업 등은 재생원료 사용 비율이 10%인 투명 페트병 식음료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투명 페트병 재생원료는 플라스틱 화학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분리 및 정제 과정을 거쳐 다시 플라스틱 제품으로 재생 이용한다.

지난 2021년에는 서울시와 한 기업이 협력하여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해 레깅스, 플리츠백 등을 만들어 출시했다. 버려진 투명 페트병을 수거해 파쇄 등의 공정을 거쳐 플레이크(flake)를 만들고, 다시 가공해 재생원료인 칩(chip)을 만들어 새 제품의 원료로 활용한 것이다.

이렇게 재생원료로서 새로운 가치로 태어나는 투명 페트병은 무엇보다도 ‘올바르게 분리배출 하기’에서 시작된다. 무라벨 제품을 사용하거나 올바른 분리배출법을 통해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고 재생원료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도모해 보자.

페트병 분리배출법		
 <p>STEP 1 용기에 든 내용물 비우기</p>	 <p>STEP 2 라벨 제거하기</p>	 <p>STEP 3 플라스틱류와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하기</p>
<p>내용물을 비워 빈 페트병으로 만드는 것은 기본이다. 안의 내용물이 흘러나오면 다른 쓰레기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 이는 재활용이 가능하던 쓰레기도 불가능하게 만들 우려가 있으니 꼭 페트병을 깨끗이 비운 뒤 배출하도록 하자.</p>	<p>페트병에 붙어있는 각종 라벨을 모두 떼어낸다. 뚜껑에도 라벨이 붙어있는 용기가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모든 라벨을 떼어낸 뒤 배출하도록 하자. 라벨을 떼어 낼 수 없는 페트병은 분리배출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로 분류해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된다.</p>	<p>투명 페트병은 찌그러트리고 뚜껑을 단아서 버린다. 원칙적으로는 뚜껑을 분리하여 배출해야 하지만 용기 속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뚜껑은 단도록 한다. 또한, 투명 페트병이라도 걸면의 글자나 상표가 인쇄된 것은 유색 페트병과 함께 플라스틱으로 배출해야 한다.</p>



area

미래를 그리는 손길,
만화로 그리는 희망

구희 작가

점점 짧아지는 가을이 아쉬워지는 요즘. 환경 도서 <기후위기인간>의 저자 구희 작가는 친근하게 환경보호에 동참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화를 선택했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말과 같이 펜 끝으로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어 가는 사람, 구희 작가를 만났다.

글. 문수민 사진. 김은주



66

플라스틱을 덜 쓰자,
비닐 사용을 줄이자는 등의 이야기는
사실 잔소리처럼 들리거든요.
조금 도전적일지라도 제 만화가
환경보호에 도움이 된다면 계속 그려나가야죠.
더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이요.

99



작은 관심이 큰 날개짓이 되기까지

내가 가진 재능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원동력이 된다. 하물며 세상을 돕는 일에 일조하는 것은 얼마나 뿌듯하고 복된 일인가. 구희 작가는 그림이라는 재능으로 지구를 돕는 일을 하고 있다. “처음부터 웹툰 작가를 생각하고 미술을 전공한 건 아니었어요. 처음엔 섬유디자인을 전공했는데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느낀 후로 기후 위기 만화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구희 작가가 처음 이상기후를 실감하기 시작한 것은 2년 전, 코로나19 시대가 도래하면서부터이다. 당시 일하던 미술학원이 코로나19로 문을 닫자, 구희 작가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휴식기를 갖게 되었다. 넘어진 김에 쉬어 간다고 했던가. 구희 작가는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며 바쁜 일상 속에선 할 수 없던 여러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 “그 해에 장마가 54일간 지속되었어요. 그 다음 해 벚꽃 개화 시기는 1930년대 이래 가장 빨랐고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났죠. 일을 하고 있었다면 깊게 생각할 여유가 없었을 지도 모르겠는데, 쉬고 있으니까 이런 이상기후가 왜 발생하는 지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기후에 대한

1. 개인의 작은 일상에서부터 환경보호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하는 구희 작가
2. 구희 작가가 인스타그램(@climate.human)에 연재 중인 그림



작은 관심으로 시작된 구희 작가의 웹툰은 오프라인 도서 <기후위기인간>으로 출간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끊임없이 울리는 위기 경보 한 컷

구희 작가는 과거 기후위기를 주제로 한 전시에 참여한 적이 있다. 좋은 동료들과 유익한 주제로 진행한 전시여서 만족스럽게 마무리했지만 접근성 면에서 아쉬움이 있었다. 전시에 찾아와야만 기후위기 관련 작품을 볼 수 있다는 부분이 그녀를 안타깝게 한 것이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던 차에 웹툰이라는 통로를 선택했다. 전시보다 온라인 접근성이 용이하다 보니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후 위기에 대해 알릴 수 있었고, DM 등 긍정적인 피드백도 훨씬 빠르게 와닿았다. 전에는 몰랐던 기후에 대한 이야기를 웹툰을 통해 알 수 있었다는 댓글이 달릴 때면 작업에 대한 보람도 느껴졌다. 대중에게 기후 위기를 알리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고, 또 유익한 일이다. 하지만 어떤 일을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 반응을 얻는 것은 쉽지 않다. 일부 부정적인 시선



3 구희 작가의 저서인 <기후위기인간>과 캐릭터



들은 감수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구희 작가의 웹툰 작업도 예외는 아니었다. 편리한 생활에 제동을 거는 이야기다 보니 불멘 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플라스틱을 덜 쓰자, 비닐 사용을 줄이자는 등의 이야기는 사실 잔소리처럼 들리거든요.” 그렇지만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기후는 개선되지 않을 것, 아니 더 심각한 위기에 빠진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에 구희 작가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다. 부정적 시선이라는 난관에서 구희 작가가 선택한 방법은 더욱 열심히 기후위기에 대한 웹툰을 그리는 것. 불편함을 외면하기에는 현재의 기후위기가 너무 심각하다는 것이 구희 작가의 생각이다. “조금 도전적일 지라도 제 만화가 환경보호에 도움이 된다면 계속 그려나가야죠. 더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이요.”

변화의 시작은 평범한 일상의 탈피

세계는 지금 환경을 보호하는 데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ESG경영 붐이 일고, 탄소중립에 대한 여러가지 캠페인 소식도 심심찮게 들려오는 중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기후 위기 속 오늘을 버텨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터. 어쩌면 국가나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대규모 환경행사를 진행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은 일상 속 사소한 편리를 포기하는 일일지 모른다. “환경을 위해 줄여야 하는 것들은 저희 생활을 다 편하게 해주



4. <기후위기인간> 캐릭터 드로잉
5. 탄탄한 자기 신념을 이야기하는 구희 작가

는 것들이거든요. 비닐 포장, 플라스틱 빨대, 자동차 같은 것들이요. 이렇게 익숙하고 편리한 것들을 탈피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구희 작가는 일상 속의 사소한 변화를 위해 매일매일 도전하고 있다. 하지만 변화는 작은 도전에서부터 시작하지 않던가. 구희 작가는 지구에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도전처럼 다가오는 변화와 오늘도 고군분투 중이다. 오늘 그린 한 컷의 만화가 내일의 푸른 미래로 거듭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말이다.



평년보다 대체로 따뜻, 올겨울 날씨 기후 전망

글 박상욱 JTBC 기자

11월 8일은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입니다. 무더위와 비 피해로 얼룩졌던 여름을 지나 가을은 소리소문없이 스쳐 갔고, 11월과 함께 겨울을 맞게 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겨울과는 사뭇 다른 겨울이지만요.

우리가 날씨를 이야기할 때 비교군으로 언급하는 '평년값'은 통상 과거 30년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2022년 기준, 이 평년값은 1991~2020년의 평균을 뜻합니다. 평년 기준, 수도권에선 11월 첫 주에 첫 얼음이 얼었습니다. 그런 과거의 겨울과 우리는 조금씩 멀어지고 있고, 올해도 역시 평년과는 먼 겨울을 보낼 걸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11월과 12월의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더 높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40%,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40%, 낮을 확률은 20%로 예측된 것이죠.

강수는 어떨까요.

'역대 최악의 가뭄'이 이어졌던 지난가을 겨울과 달리, 이번 겨울에는 가뭄 걱정을 하지 않아도 좋을 듯합니다. 강수도 기온과 마찬가지로 평년과 비슷(40%)하거나 더 많을(40%) 걸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평년과 다른 겨울은 한국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예년과 다르게 역대급으로 달궈진 지구 때문입니다. 지난 7월 3일, 사상 최초로 지구의 평균기온이 17°C를 넘어선 이래로 10월까지 지구의 기온은 연일 '가장 뜨거운 상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역대 가장 뜨거운 7월, 8월, 9월, 10월...' 갑작스러운 이변으로 지구 전반의 온도가 푹 떨어지지 않는 이상, 이러한 역사적 기록은 겨울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APEC 기후센터(APCC)는 동아시아 지역의 기온과 강수 역시 평년보다 높고 많을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특히 한반도의 경우, 10월~12월 3개월 기간, 기온은 평년보다 1~1.5°C 높고, 강수는 평년보다 일평균 0.3mm가량 더 많을 것이라는 게 APEC 기후센터의 다중모델 예측 결과입니다.

다만 올겨울엔 두 개의 커다란 변수가 존재합니다. 엘니뇨와 한대전선 제트기류, 즉 북극 제트입니다.



지난여름, "수퍼 엘니뇨로 각종 기상이변이 우려된다"는 뉴스가 다수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엘니뇨의 영향이 큰 계절은 여름이 아닌 겨울입니다.

이미 평년보다 1.6℃ 안팎까지 뜨겁게 달궈진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해수온은 겨우내에도 평년보다 1.4℃가량 높을 걸로 예상됩니다. 엘니뇨가 계속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당장 북반구 곳곳엔 이상 고온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고온 현상은 뜨거운 바다를 만들고, 평소보다 따뜻한 공기는 더 많은 수증기를 만들어 냅니다. 그렇게 하늘로 향하는 공기의 흐름은 저기압을 만듭니다. 저기압은 비를 뿌리게 되고요. 이는 앞서 소개한 기상청 및 APCC의 기상 전망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따뜻하고, 비 좀 내리는 것이 문제인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변수, 한대전선 제트기류가 ‘진짜’ 문제입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 제트기류의 영향으로 한반도에 발생할 기상현상이 문제입니다.

달궈진 건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엘니뇨 감시 구역의 바닷물만이 아닙니다. 북극, 적도, 남극 할 것 없이 지구 곳곳이 달궈졌죠. 연일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는 지구의 기온이 그 증거고요. 지난 지구보고서를 통해 자주 설명해 드렸듯, 북극의 기온

이 오르면 극지방의 찬 공기를 가두는 ‘에어 커튼’ 역할을 하던 제트기류가 약해집니다. 수평 방향으로 팽팽히 불던 제트기류는 세력이 약해지며 구불구불 뱀처럼 사행(蛇行)하게 되고요. 마치 녹아내린 아이스크림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제트기류가 처져 내려온 곳엔 강추위가, 반대로 올라간 곳엔 이상 고온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약해진 제트기류’로 지난겨울, 유럽엔 이상 고온이 찾아오며 알프스 스키장의 눈이 녹아내렸고, 스페인 남부에선 사람들이 12월에도 해수욕을 즐겼죠. 하지만 우리나라엔 갑작스러운 혹한이 찾아와 곳곳이 팽팡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남쪽에선 뜨끈한 수증기가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혹한에 더해 폭설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저 ‘평년보다 따뜻하다’는 겨울철 기상 전망에 긴장을 풀고 느슨해질 수 없는 이유입니다.

따뜻한 겨울날이 찾아왔다고 ‘온난화야 반갑다’ 외칠 수도, 반대로 갑작스러운 한파와 폭설이 찾아왔다고 ‘온난화야 어디 갔나’ 외칠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처지입니다. 이는 산업혁명 이래로 아무런 비용 없이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뿜어낸 우리에게, 인자하던 Mother Nature가 그간의 외상값을 기록한 청구서인 셈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행복한 물의 나라 스웨덴

경제적 풍요와 깨끗한 환경을 추구하는 스웨덴 사람들은 행복한 삶의 첫 번째 조건으로 '자연 환경'을 꼽는다. 자연을 행복한 삶의 원천으로 여기는 것은 스웨덴 사람들의 철학이자 전통이기 때문. 과거의 공업도시에서 살기 좋은 수변 도시로 변모한 함마르비부터 북유럽의 베네치아라 불리는 스톡홀름까지, 청정한 물의 도시로 떠나보자.

글_우지경(여행작가) 사진_우지경, 스웨덴 관광청



함마르비

살기 좋은 수변 생태 도시 함마르비

스톡홀름 남쪽으로 5km 떨어진 함마르비는 호숫가의 친환경 주거 공간과 푸른 자연이 공존하는 수변 도시다. 과거 폐기물 매립장에서 흘러나온 유독물질로 오염된 공업도시였는데, 지금은 2만 8천여 명이 사는 생태도시로 변모했다. 변화 뒤에는 환경 오염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협업한 시 당국, 도시 계획가, 개발자, 건축가, 조경가, 에코테크 기업 엔지니어의 빛나는 아이디어와 노력이 숨어 있다. 1991년 함마르비 호수 주변에 아파트 8,500호를 건설할 때 수변 도시의 특성을 살려 4개의 물길을 대지 안으로 끌어오고, 주변에 공원을 배치하여 사방이 호수와 녹지로 둘러싸인 주거 지역을 조성했다. 건물은 바다와 운하를 향해 지어져 최대한 많은 주택이 풍부한 수변 전망을 한 것 누릴 수 있게 했다. 콤팩트 그린 타운이라는 전략에 따라 울타리가 없고 보도가 있는 공공 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다양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함마르비 수변 도시는 건설 단계에서부터 스웨덴의 에너지 절약 기술을 총동원해 에너지 보존 효율을 높였다. 자원절약형 실내 환기 시스템을 도입하고, 아파트의 유리는 모두 3중창으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했다. 또, 옥상에는 그린 지붕이라 불리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도록 했다.

쓰레기를 자원으로 쓰는 녹색 도시

함마르비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자원으로 활용한다. 물과 녹지가 풍부한 주거지역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친환경적인 쓰레기 처리 방법을 고안한 덕이다. 함마르비 주민들이 각각 분리된 쓰레기 통에 생활 쓰레기를 버리면, 지하에 설치된 진공관을 통해 쓰레기들이 강력한 공기 압력을 타고 2km 떨어진 중앙수집소로 집하되도록 쓰레기 처리장을 설계했다. 이렇게 모은 쓰레기를 소각할 때 배출된 열은 지역난방과 전력 생산에 쓰인다. 분리수거와 운송을 자동화해서 쓰레기 처리 비용은 줄이고, 활용률을 높인 것. 음식물 쓰레기와 생활하수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친환경 연료 바이오가스로 변환해 자동차 연료로 재사용한다. 함마르비뿐 아니라 수도 스톡홀름의 버스와 트램 등 대중교통도 함마르비 시에서 쓰레기로 만든 바이오 가스를 연료로 쓴다. 또한 함마르비는 차량 통행을 줄이고 경전철과 수상보트, 자전거 도로 등 친환경 교통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했다. 경전철의 운영으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이고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기 편하도록 자전거 도로를 확대한 것. 수변 도시인만큼 수상보트 역시 1일 이용객이 3,000명이 넘는 만큼 매우 일상적인 교통수단이다.



섬과 섬을 잇는 물의 도시 스톡홀름

발트해와 멜라렌 호수 사이에 위치한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은 14개의 섬을 57개 다리로 엮어 놓은 도시다. 물의 도시 스톡홀름을 제대로 바라보려면 배를 타고 운하를 누벼야 한다. 배에서 바라보면 물길로 둘러싸인 섬에 파스텔 빛 건물이 솟아 있는가 하면, 드넓은 수면 옆으로 숲이 우거진 섬, 알록달록한 별장이 있는 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난다. 왜 스톡홀름의 별명이 '북유럽의 베네치아'인지 고개가 끄덕여지는 아름다운 운하 풍경이다. 이 섬에서 저 섬으로 다리 위를 걸거나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일도 이색적이다. 친환경 연료 바이오 가스를 쓰는 트램을 타고 섬 사이를 이동할 수도 있다. 다리를 스치는 바람은 상쾌하고, 어깨너머로 질푸른 바다가 일렁인다. 그렇게 스톡홀름의 낭만은 수로를 타고 흐른다. 매년 노벨상 시상식이 열리는 시청사가 있는 쿡스홀멘부터 물 흐르듯 섬을 누비기도 좋다. 쿡스홀멘에서 다리 하나를 건너면 우아한 왕궁과 구시가가 있는 감라스탄이 있고, 감라스탄에서 다시 다리를 건너면 미술관 섬 셉스홀멘이 있다. 이곳에서 또 다리를 건너면 박물관 섬 유르고르덴이 차례로 연결된다.



중세의 흔적 오롯이 남아있는 감라스탄

스톡홀름 정중앙의 감라스탄은 가장 역사가 오래된 섬이다. 13세기 감라스탄에서부터 도시가 발달해 지금도 바로크, 로코코, 고딕 등 시대에 따라 건축된 고풍스러운 건물이 섬을 빼곡히 채우고 있다. 특히 스토르로트예트 광장은 노벨 박물관, 증권거래소 등 고아한 건물과 노천카페, 레스토랑이 빙 두르고 있어 활기가 넘친다. 스토르로트예트 광장 옆으로는 길을 헤매도 좋을 만큼 예쁜 골목이 싹뚝처럼 이어진다. 안 들어가곤 못 배길 만큼 예쁜 잡화점, 옷 가게, 그릇 가게가 골목 안에서 여행자의 발길을 붙잡는다. 골목을 누비다 섬 가장자리로 나오면 다시 항구와 바다가 눈앞에 시원스럽게 펼쳐진다.





초록의 박물관 섬, 유르고르덴

유르고르덴은 17세기 후반 왕실 사냥터였던 섬으로 여전히 숲과 언덕이 어우러진 목가적인 풍경이 남아 있다. 섬 안에 다양한 박물관이 모여 있어 '박물관 섬'이라고 불린다. 섬 초입에서부터 스웨덴 최대 문화사 박물관, 노르디스카 무제트가 있어 16세기부터 현대에 이르는 의복 가구와 17세기에 건조한 배 바사호를 살펴볼 수 있다. 노르디스카 무제트 근처에 스웨덴 태생 보드카 앵슬루트에서 운영하는 스피릿 박물관과 스웨덴의 국민 밴드 아바를 기념하는 아바 박물관도 있다. 스피릿 박물관에서는 보드카의 역사와 제조 과정을 살펴볼 수 있고, 아바 박물관에는 아바 멤버들의 의상과 음반 등 전시품을 관람할 수 있다.



옛 세관을 개조한 수변 미술관 포토그래피스카

수변 도시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은 스톡홀름 남쪽에 자리한 섬, 쇠데르말름의 현대사진 박물관 '포토그래피스카'다. 쇠데르말름은 과거 노동자 계층의 주거지였는데, 포토그래피스카를 비롯해 갤러리와 카페, 바, 특색 있는 상점이 속속 들어서며 힙스터가 모여드는 동네가 됐다. 포토그래피스카는 옛 세관을 개조한 붉은 벽돌 건물로 크루즈 선이 정박한 선착장 옆에 자리 잡고 있다. 고풍스러운 건물 안에는 다큐멘터리 사진과 감각적인 인물 사진이 가득하다. 2층에 전망 좋은 카페 겸 레스토랑이 있는데, 창문 프레임에 담긴 유르고르덴과 바다의 풍경도 작품만큼이나 근사하다.





K-water 여가선용부 수도권FC의

기본 기술 팁

지난 10월 제19회 향저우 아시안 게임 남자축구 부문에서 우리나라가 3연패를 달성하며 축구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고조되었다. K-water 여가선용부 수도권FC와 함께 초보자도 쉽게 익힐 수 있는 축구의 기본 기술을 배워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자.

글. 우수정 사진. 김은주
영상. 천정민(리스토리)

11명의 선수가 한 팀을 이뤄 골을 넣는 구기 종목, 축구. 지구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 하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료들과 호흡하며 골을 향해 열정적으로 달리는 모습이 관중들에게 큰 감흥을 일으키기 때문일 터. 축구는 프로 선수들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를 방증하는 것이 바로 다양한 축구 관련 TV 예능 프로그램으로, <골 때리는 그녀들> 등이 있다. 축구를 좋아하는 여성들이 모여 진심으로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며 인기를 얻고 있는 것. 2001년에 설립된 K-water 여가선용부 수도권FC도 같은 취지로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파주, 남양주, 화성,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축구를 좋아하는 회원들이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주말 오전에 모여 축구 모임을 진행한다. 그간 개최된 국토부, 환경부장관기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우수한 선수들을 배출하고, K-water 사내에서 개최된 각 본부별 축구대회에서 많은 우승을 거머쥐

는 등 프로페셔널한 스포츠 클럽으로 도약하고 있다. K-water 여가선용부 수도권FC를 이끄는 지방상수도처 홍광표 차장은 2010년 K-water 물사랑 축구대회에서 최우수선수상을 받은 실력자다. 그는 수도권FC 활동을 통해 직군이나 나이를 떠나 운동장에서 함께 땀을 흘리며 직원들과 친목을 도모할 수 있고, 다양한 정부 기관과 친선 경기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동호회 활동의 장점으로 꼽았다.

축구는 개인 운동과 달리 11명의 인원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동료를 배려하고 상대의 움직임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훌륭한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것이다. 서로의 호흡이 맞았을 때의 쾌감과 즐거움은 배가 될 것이다. 축구를 좋아하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 규칙적인 동호회 활동을 통해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구축해 보자. 평소 축구를 배우고 싶었던 초보자를 위해 홍광표 차장이 세 가지 기본 기술을 소개한다.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기본 기술

여가선용부 수도권FC

- 홍광표 차장 지방상수도처
- 양대영 과장 경기서북권지사
- 최승규 대리 한강수도지원센터



홍광표 차장, 지방상수도처



인사이드 킥

축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킥으로, 발 안쪽 면을 이용해 조금 더 먼 거리에 있는 동료한테 패스하거나 골 가까이에서 슈팅할 때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킥을 할 때는 몸을 숙이고 디딤발을 고정해야 합니다.



인사이드 패스

인사이드 패스는 발 안쪽 복숭아뼈 아랫부분을 이용해 공을 동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발에 공이 닿는 면적이 크므로 동료 선수에게 정확하고 안전하게 공을 보낼 때 사용합니다. 패스할 때는 무릎을 살짝 굽히고 공을 보내야 할 곳을 주시해야 합니다.



인사이드 드리블

발 안쪽의 넓은 부분으로 공을 밀어내며 원하는 자리로 이동하는 기술입니다. 발등 바깥쪽으로 공을 밀어내는 아웃사이드 드리블에 비해 상대 선수로부터 공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으며, 드리블할 때는 공을 자신으로부터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K-water 수도권FC는
직원들의 가입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홍광표 차장의 기본 기술'
영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11월 16일에 치르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시험 전후 스트레스에 몸과 마음이 지칠 수 있는 이맘때,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는 건강관리 팁을 소개한다.

글. 문수민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수능 전

규칙적인 생활 습관은 기본!

가까워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마음이 조금씩 끼니를 거르거나 수면 시간을 대폭 줄이는 등 갑작스레 생활 습관은 바뀌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다. 기존의 공부해 오던 스타일과 평정심을 유지하고 적절한 수면시간을 통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시험 당일에도 긴장하지 않고 평소대로 임할 수 있다. 특히 규칙적인 수면시간은 적절하게 뇌가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줌으로써, 낮에 집중력과 기억력, 판단력 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적절한 수면시간은 자정을 넘기지 않고 잠들어 최소 6시간 정도의 수면시간을 유지하도록 한다. 하나 더, 규칙적인 식사는 위산이 제때 분비되어 원활한 소화를 돕는다. 식사를 할 때는 너무 맵거나 차가운 음식 등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두뇌에 필요한 영양을 주는 베리류, 등 푸른 생선, 다크 초콜릿, 녹색 채소, 견과류 등을 섭취한다. 또한 잠을 깨우려는 용도로 커피나 에너지드링크에 의존할 경우 두근거림이나 현기증을 유발해 집중력을 흐트릴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수능 후

고생했어 모두, 스스로에게 칭찬을!

모든 수험생이 최선을 다해 시험을 보지만 모두 최고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시험 결과에 따른 불안함에 휩싸여 그동안 잘 유지했던 컨디션이 오히려 시험 후에 흔들리는 경우도 있다. 또, 시험이 끝났다고 하여 그동안 못했던 다이어트나 운전면허 따기, 수많은 약속들에 치여 건강관리를 놓치는 이들도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갑작스럽게 일과를 바꾸지 않고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 나가는 것이다.

또한 과도한 불안감이나 무력감 때문에 일상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면 병원 진료를 고려해 봐도 좋다. 상담만으로도 불안한 마음을 잠재울 수 있고,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가까운 가족과 친구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걱정스러운 마음과 감정을 표출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수능 이후로 계속 진행되면 입사 일정과 논술 등의 일정이 있으니 적당한 휴식과 체력 안배를 통해 건강한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하자.

DO

수능 전후,
규칙적인 생활 습관
유지하기



자정을 넘기지
않고 최소 6시간 이상
수면하기



DON'T

너무 맵거나
차가운 음식 등
자극적인 음식
피하기



커피나
에너지드링크 등에
의존하지 않기





화목함으로 물드는 따뜻한 사람들, 금강경영처와의 만남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10월의 어느 날. 누구보다도 뜨거운 여름을 보낸 금강경영처를 위해 수(水)타벅스가 떴다. 수(水)타벅스를 신청한 이들은 바로 팀 내 사랑을 듬뿍 받는 금강경영처의 특급대리 세 명! 이들의 대리 승진을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했던 이날, 한 해 동안 수고한 금강경영처 직원들의 시간들을 보상받았던 따스한 하루가 기록됐다.

글_ 구지희 사진_ 김은주 영상_ 남건모(플러스메이커스)



금강경영처
 수(水)타벅스
 커피
 배달지



뜨거운 열정, 뜨거운 여름이 지난 지금

전북도민이 매일 마시는 수돗물의 77%(50여만 톤/일)를 생산 및 공급하고 있는 금강유역본부. 금강경영처뿐만 아니라 금강유역본부 모두에게 올해 여름은 유독 뜨거운 기억으로 남아있다. “여름 집중호우 기간에는 언제나 비상근무와 수해복구 지원으로 바쁜 것이 사실인데요. 올해는 잼버리 행사 지원까지 더해져 더욱 바빴던 여름이었습니다. 피곤하고 힘든 상황이 계속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서로 다독이며 궂은일을 망설이지 않는 동료들 덕분에 올여름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금강경영처 탁현진 대리의 말처럼 금강유역본부는 잼버리 대회 지원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금강유역본부는 온열 질환 발생자를 예방하기 위해 개영식에 냉동탑차를 동원해, 병입 수돗물 1만 병을 배포했다. 또한 잼버리 대회 기간 동안 참가자들이 언제든지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이동식 음수대를 운영하고 병입 수돗물 28만 병을 지원하는 등 K-water의 역량을 십분 발휘했다. 뿐만 아니라 팔찌형 해충기피제 1만 개와 염분 보충용 식염 포도당 50만 정 지원, 부안댐 인근 숲에 제공한 폭염대피소 등을 운영하며 참가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가을 햇살처럼 따끈따끈한 추억이 된 수(水)타벅스

가을 단풍을 닮아 노랗게 물든 수(水)타벅스 커피차가 도착하자 삼삼오오 금강경영처와 금강유역본부 직원들이 모여들었다. 먼저 도착한 이들은 이번 커피차를 신청한 금강경영처 직원들. “금강경영처의 특급대리, 탁현진 대리가 신청했는데요! 처장님이 평소 조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여러모로 많이 노력하시다 보니 부서 분위기가 무척 유쾌하지요.” 서정욱 차장의 설명대로 유달리 화기애애한 금강경영처의 분위기는 맛있는 음료가 함께하니 더욱 활기를 띠었다. 한편 오늘 수(水)타벅스가 금강유역본부로 달려온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금강경영처 21사번 직원들의 승진 소식 때문. “탁현진 대리, 이가영 대리, 박서연 대리! 평소에도 참 칭찬해 주고 있었는데 수(水)타벅스라는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이 말을 전합니다.” “언제나 열심히 일하던 세 명이 승진했네요. 정말 축하합니다.” “승진하신 분들 축하합니다!” 이상열 과장, 남궁권 대리 등 동료들의 축하 속에 대리로 승진한 3명의 특급대리는 화려한 자개 명패를 전달받았다. 금강경영처 부서원은 마침 이날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박서연 대리의 사진을 들고 단체 사진에 임할

만큼 특급대리 세 명을 향한 애정이 대단했다. “부서원들이 이번 승진을 많이 축하해 주었는데, 동기인 탁현진 대리가 수(水)타벅스를 신청한 덕분에 보답할 기회가 생겨서 좋아요.” 이번 특급대리 중 한 명인 이가영 대리가 소감을 전했다.

차가워진 공기만큼 각자의 텀블러와 컵 위로 몽글몽글 연기가 피어오른다. 이날 마신 음료만큼이나 따스웠던 금강경영처 사람들께 수(水)타벅스의 추억은 사진으로 남아 행사 이후 액자로 전달되었다. 끝나지 않는 열정으로 금강유역본부와 금강경영처 직원들은 올해의 남은 시간들을 알차게 준비하고 있다. “금강경영처는 본부 1,200명을 대신해 인사, 예산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은 한 해 성과를 정리하고 인사 평가를 하는 시기인데요. 언제나처럼 이번에도 성과가 좋아요. 또 직원 여러분들도 열심히 일해주셔서 감사해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박형진 부장에 이어 신태선 처장이 힘찬 메시지를 전달하며 자리가 마무리되었다. “직원 여러분, 올해도 너무나 잘해주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이런 분위기를 유지합시다!”

message.

“저희를 보살펴 주신 선배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탁현진 대리

금강유역본부 금강경영처

수(水)타벅스 덕분에 남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데 큰 힘을 얻었습니다. 올해 10월 4급으로 승진한 저 포함해 11명인 21사번 동기 모두 축하해요! 이 자리를 빌려 지금까지 저희를 보살펴 주신 선배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언제나 부서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들어 주시는 신태선 처장님 덕분에 첫 사회생활에 금방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水)타벅스가 간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수(水)타벅스가 간다' 영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금강경영처 편 보러가기



URBAN RECONSTRUCTION

전쟁으로 인해 다수 인프라가 손실된 우크라이나의 도시 재건 사업에 K-water가 참여한다. 50년간 쌓아온 K-water만의 노하우로 물, 에너지, 도시 등 분야별 재건 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원팀 코리아의 일원으로서 재건에 참여하는 K-water를 통해 새롭게 일어설 우크라이나를 기대해도 좋다.

글_김영은 자료_K-water

우리 물 기술로 우크라이나를 다시 세웁니다



11월호 웹진에서
 오디오북을
 들어보세요!

공공기관 최초,

우크라이나 재건에 물꼬를 트다

지난 2022년 2월부터 시작된 전쟁.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주택과 도로, 철도, 공항 등 주요 인프라가 다수 손실됐다. 복구가 절실한 우크라이나 주요 시설은 수천 개소에 달하며, 이 중 특히 물 관련 시설은 700여 개나 해당한다. 주요 시설인 카호우카 댐이 파괴되는 등 총 25개의 수자원시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7월, 우크라이나와 정상 회담을 진행하고 재건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water는 원팀 코리아(우크라이나 재건협력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정부의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사업 후속 조치 이후 가장 먼저 나섰다. 공공기관 최초로 지난 7월 26일, 우크라이나 수력댐 운영 공공기관인 UHE(Ukrhydroenergo)와 카호우카 댐 복구 등 '댐 및 수력발전 분야 협력'을



우리나라 공공기관 최초로 우크라이나 수력댐 운영 공공기관 UHE(Ukrhydroenergo)와 댐 및 수력발전 분야 협력을 체결했다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로써 K-water는 양국 협력을 위한 물꼬를 여는 첫 번째 사례가 되었다. K-water는 카호우카댐 복구 외에도 노후 수자원시설을 현대화하고, 운영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K-water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선도적 행보는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원팀 코리아 한국-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포럼(2023.9월)'의 후속 조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금, 지난 9월 25일 원팀 코리아 참여기업 중 최초로 '물·에



너지·도시' 분야별 실무단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방문한 것이다. K-water는 이번 방문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재건축 등 정부 관계기관과 헤르손주(州) 식수 지원 및 향후 도시재건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헤르손주는 크림 반도와 접경한 곳이자 최대 원전인 자포리자

원전이 자리하고 있다. 지속적인 전투가 벌어지면서 카호우카 댐이 파괴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도움이 절실한 지역이다. K-water는 병원, 학교 등 깨끗한 식수가 필요한 주요 민간 시설을 우선으로 약 3만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정수처리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시를 재건하는 K-물기술

지난 9월 12일에는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Dmytro Ponomarenko)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K-water를 방문해 윤석대 사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을 위한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상호협력 의지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대사와 윤석대 사장은 우크라이나의 피해 상황과 재건에 관한 중요 이슈를 공유하고 K-water의 독보적인 물관리 및 도시 재건 분야 기술과 역량을 활용하는 방안

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을 마친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대사는 AI, 디지털 트윈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물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대청댐을 방문하는 등 K-water의 물관리 역량을 한눈에 확인했다. K-water는 50년 노하우의 독보적인 물관리 기술로 우크라이나 주요 하천의 수량, 수질, 생태복원 등에 대한 체계적인 물관리와 도시 인프라 분야에 적극 참여해 우크라이나 재건에 힘을 보태 예정이다.

1. 우크라이나 키이우 부시장과의 면담
2. K-water와 우크라이나 재건축간 MOU 체결
3.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협력 MOU 체결



스마트도시로 되살아나는 우크라이나

지난 9월,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원팀 코리아는 양국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6대 선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K-water는 6개 선도 프로젝트 중 하나인 수자원시설 재건 협력 사업에 참여한다. 직접 접근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위성사진을 활용한 카호우카 댐 현황 분석과 기초 조사, 유사 규모 댐 전문가 파견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카호우카 댐 복구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K-water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했을 정도로 주요 사업 중 하나다.

또한 양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재건 시 우만시를 스마트시티로 발전시키기 위한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지난 8월, K-water가 '우크라이나 우만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의 시행자로 최종 선정되었다. 이로써 K-water는 국내 기업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된 셈이다. 현재는 우크라이나 거점 도시와 연계할 수 있는 도시 계획과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의 발전 전략을 필두로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사업이 추진 중이다. K-water는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재원을 확보할 방안을 수립하고 우만시 개발 여건 분석, 관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연수 등을 지원한

다. 우만시 스마트시티는 2024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K-water는 원팀 코리아의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우리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도시 재건 사업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아픔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찬 물줄기가 되어 줄 것이다.

4. 우크라이나 수력댐 운영 공공기관 UHE(Ukrhydroenergo) 방문
5. 우크라이나 카호우카 댐 전경



*6대 선도 프로젝트
 키아우 교통 마스터플랜, 우만시(市) 스마트 시티 마스터플랜, 보리스필 공항 현대화, 부차시(市) 하수처리시설, 카호우카 댐 재건지원, 철도노선 고속화 사업



채권발행 30년 결실 ‘그린본드 발행 성공!’ 친환경 프로젝트에 앞장섭니다

전 세계가 친환경 이슈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지금, 기업의 그린본드 발행은 ESG 선도기업 이미지 제고의 든든한 서포터가 될 수 있다.
올해로 회사채 발행 30주년을 맞는 K-water 그린본드 발행 성공의 의미를 알아보자.

글. 김영은 자료. K-water

그린본드(녹색채권)의 등장과 의의

최근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 ESG경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면서 채권시장에도 그린본드가 각광받기 시작했다. 그린본드란, 자금 사용 목적이 재생에너지나 오염방지 등 환경친화적 프로젝트를 위한 투자일 경우에 발행되는 채권이다. 그린본드와 같은 ESG채권은 일반 채권과 달리 회계법인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국내외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권의 사용처와 프로젝트 선정절차, 자금관리 등이 ESG 원칙에 부합하는지 명확한 인증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본드는 친환경적 기업의 가치를 평가받는 새로운 지표라 볼 수 있다. K-water는 2018년 금융공기업을 제외한 공기업 최초로 그린본드 발행에 성공하였으며, 채권발행 30주년이 되는 올해 9월에는 한화 3,750억 원에 달하는 2억 5천만 스위스프랑(CHF)의 그린본드 발행에 성공했다. K-water가 쌓아온 그간의 노하우와 쌓인 신뢰를 바탕으로 이번 그린본드 발행에도 성공할 수 있었다. 특히 2.1725%의 낮은 금리로 발행하여 원화 채권 대비 이자비용을 32억 원 가까이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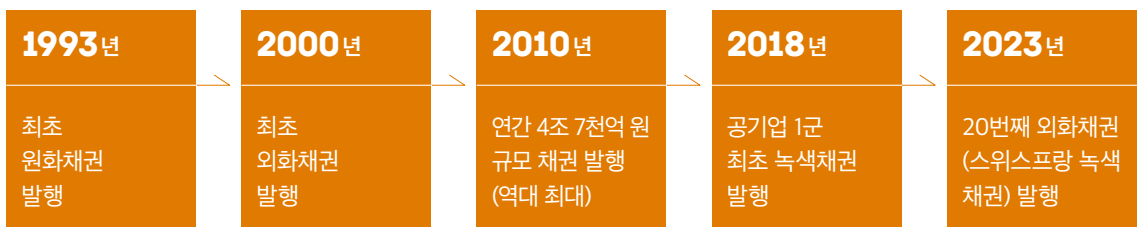


친환경 프로젝트 선도 기업으로 우뚝

K-water는 2018년, 2022년 글로벌 금융 전문지 '디 에셋(The Asset)'이 선정한 '디 에셋 트리플 에이 어워드' 최우수 그린본드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는 K-water의 물관리 역량의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적인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 할 수 있다. 30년에 걸친 채권발행 경험과 이를 기반으로 한 국제적 평가와 재무건전성, 성장 잠재력 등으로 꽃피운 K-water의 그린본드. 이번 채권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이상기후로 인해 증가한 가뭄이나 홍수 등의 물 재해를 저감하는 데 투자할 계획으로, 수도 시설 대체, 재생에너지 확대 등 다양한 친환경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석대 사장은 “이번 스위스프랑 채권발행 성공은 K-water의 부채비율 축소 등 지속적인 재무구조 개선 노력과 그린사업에 대한 경쟁력을 글로벌시장에서도 인정받은 것”이라며, “국내의 투자자들을 포함 국민이 신뢰하는 기업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K-water 채권발행 역사





서혜연 대리
경기동북권지사

정윤경 대리
아라뱃길지사

문지은 대리
SK하이닉스
산업용수관리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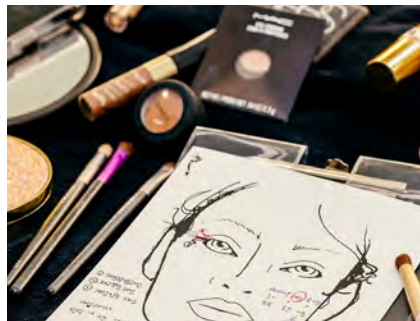


익숙했던 나의 이목구비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조화로운 컬러를 찾아가는 과정은 ‘나’ 자체를 알아가는 여정이기도 하다. 새로운 이미지 변신을 꿈꾸는 입사 동기 3인방이 메이크업 원데이 클래스에 나섰다. 자세히 보아야, 오래 보아야 예쁘다는 어느 시인의 말처럼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까지 깊이 들여다본 시간이었다.

글_박향아 사진_김은주

나다운 나를 찾아가는 여정

메이크업 원데이 클래스



4년간 매일 봐오던 입사 동기들과의 소중한 하루

아라뱃길지사 정윤경 대리, SK하이닉스산업용수관리단 문지은 대리, 경기동북권지사 서혜연 대리는 입사 동기다. 학교 동창, 회사 동료와는 묘하게 다른 특별한 관계다. 비록 사회에서 만났지만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것 같은 친밀함이 있고, 동창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끈끈한 동지애가 있다. 같은 시기에 사회생활을 시작해 비슷한 고민을 하며 함께 성장해 온 ‘입사 동기’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감정일 것.

오늘 메이크업 클래스는 서혜연 대리의 신청으로 성사됐다. 2019년에 함께 입사해 4년간 한강유역본부에서 근무했던 세 사람은 2022년 이후 각자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다. SNS를 통해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자주 연락을 주고받지만, 얼굴을 마주하며 보내는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우리 오랜만에 뭉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자”는 막내 서혜연 대리의 제안에, 두 언니는 늘 그렇듯 흔쾌히 “OK!”를 외쳤다.

“즐거운 이벤트를 만드는 역할은 항상 혜연이 몫이에요. 혜연이가 ‘우리 이거 할까요?’라고 얘기하면 윤경 언니가 적합한 장소를 섭외하고 예약까지 신속하게 해결하죠. 행동대장이랄까요?” 그렇다면 문지은 대리의 역할은 뭐냐는 물음에 “저는 프로 참석러입니다.(웃음) 100% 참석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즐기며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죠”라며 답한다.

셋 중 맏언니인 정윤경 대리는 “나이는 다르지만 편안한 친구 같은 사이라면서 ‘서로가 있어 든든할 때가 참 많았어요’라고 관계를 정의한다. “입사 초반에는 업무적으로 미숙하다 보니 실수할 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동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특별한 얘기를 건네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아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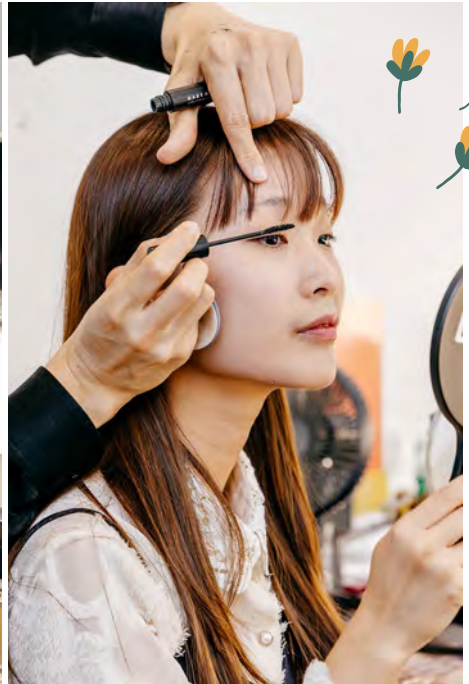
‘쌩얼’에 익숙한 우리의 메이크업 도전기

전문가에게 메이크업을 배워보는 건 처음이라는 세 사람. 화장대를 빼곡하게 채운 다양한 메이크업 제품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아름답게 변신할 서로의 모습’이 상상되어 가슴이 두근거린다. 세 사람은 소위 말하는 ‘쌩얼’, 그러니까 서로의 메이크업 전 모습을 익히 알고 있는 사이다. 정윤경 대리와 문지은 대리는 서로 근무지가 달라지기 전까지 룸메이트로 함께 살았고, 서혜연 대리는 두 사람의 집에 가장 자주 놀러 오는 단골손님이었다. 맛있는 요리를 해 먹고 수다를 떨기도 하고, 여름에는 바다로, 겨울에는 스키장으로 여행도 많이 다녔다. “풀메이크업을 한 모습이 오히려 낯선 사이예요”라는 얘기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대학생 때는 메이크업에 관심이 많았지만, 이제는 특별한 날이 아니고는 선크림만 바른다는 정윤경 대리, 매일 메이크업을 하지만 최소한의 제품만 사용해 10분이면 충분하다는 문지은 대리, 메이크업하면 괜스레 기분이 좋아서 열심히는 하는데 ‘잘’ 하지는 못한다는 서혜연 대리. “나에게 잘 어울리는 메이크업 방법을 배워서 좀 더 아름다워지겠다”는 목표와 함께, 오늘의 클래스가 시작됐다.



메이크업의 시작은 ‘나’를 마주하는 것

메이크업 클래스의 시작은 메이크업 제품이나 도구 사용법을 공부하는 것이 아닌, 내 얼굴을 오롯이 마주하는 것이었다. 거울을 들고 내 눈꼬리가 위를 향하고 있는지 아래를 향하고 있는지, 눈썹은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얼굴 구석구석을 자세히 관찰한다. “단점을 감추는 것보다 장점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이크업 프로 아티스트 임천수 원장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각자의 눈매에 맞게 아이라인을 그려보는 세 사람. “아이라인을 매끄럽게 그리는 게 제일 어렵다”는 서혜연 대리도 오늘은 과감하게 자신의 눈매를 돋보이게 해줄 라인을 그려보는 중이다.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지우고 다시 그리면 되니 망설임 필요가 없다”는 아티스트의 설명을 듣고 나니, 손끝에 자신감이 한층 더해진다.

다채로운 색깔 중 나를 더 빛나게 해주는 색은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도 꽤 흥미롭다. 패션과 일정에 맞춰서 다양한 색채에 도전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한정된 색깔만 고집하기보다 다양한 컬러에 도전해 보라는 아티스트의 조언이 이어지자 자연스럽게 외면했었던 컬러에 손이 간다. 클래스를 마치고 다 함께 압구정 거리를 누빌 계획이라는 세 사람. 조금 화려한 컬러를 선택해 보기로 한다. 자세히, 오래 보아야 아름다운 나의 매력을 찾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오늘.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입사 동기들의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마저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날로 남았다.



정운경 대리

메이크업은 결국 나를 더 잘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닐까요? 생김새뿐만 아니라 어떤 색의 옷이 많은지, 어떤 컬러와 분위기를 좋아하는지 그런 질문들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스스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잘 어울리는 색과 메이크업 방법들을 찾아보려고요. 쉽고 재미있게 메이크업을 가르쳐주셔서, 앞으로도 종종 '새로운 나'를 마주하고 싶을 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지은 대리

특별한 날에는 새로운 메이크업에 도전해 보고 싶다가도 늘 사용하던 컬러와 방법이었어요. 오늘 클래스를 통해 좀 더 다양한 컬러와 방식을 시도해 볼 용기가 생겼어요. 메이크업이라는 게 결국은 나의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의 하나잖아요. 오늘 나를 빛나게 해줄 메이크업 방법을 배운 것처럼, 회사에서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며 '같이 일하고 싶은 동료'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서혜연 대리

오랜만에 정말 공들여서 메이크업을 해봤네요. 아티스트분의 설명을 따라 차근차근 메이크업하다 보니 점점 제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역시 제대로 알고 시간을 들인 만큼 예뻐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앞으로 특별한 날에는 오늘 배운 저의 메이크업 실력을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웃음) 무엇보다 오랜만에 언니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누군가 칭찬을 건네기만 해도 부담스럽고 어색해 손사래를 치는 이들이 있다. 무엇 때문에 칭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절하게 되는 걸까? 마음 속 문제점을 극복하고 기쁘게 칭찬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루가 되길 응원한다.

글. 오미영(닥터스 심리아카데미 대표원장)

상사와 동료의 칭찬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66

먼저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칭찬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칭찬을 건넬 수도 있는 법이다.

99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긍정적인 기대의 말은 상대방이 계속해서 그 행동을 하도록 강화하는 힘이 있다. 잘한다고 칭찬을 듣게 되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 행동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사람의 보편적인 마음이다. 하지만 오히려 칭찬을 받을 때 기분이 좋아지기보다는 어색해하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상대방이 칭찬을 하면 몸이 경직되면서 진땀이 나기도 하고, 얼굴이 붉어지면서 반사적으로 손사래를 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행동의 이면에는 낮은 자존감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가진 내적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즉,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 칭찬은 내적 신념과 불일치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럼 상사와 동료, 친구 등 지인들의 칭찬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첫 번째, 칭찬이 왜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지는지 원인을 찾아보고, 이를 수정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냉정하고 칭찬에 인색한 부모 밑에서 성장하였을 경우 자라면서 칭찬을 받아본 경험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상황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일 수 있다. 유능하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지만, 관계를 매끄럽게 해주는 대화 즉, 작고 큰 칭찬의 말이 오가는 것이 부재하다면 차갑고 까칠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 성취 지향적인 사람이 친절하기까지 하다면 함께 일할 때 훨씬 플러스로 작용하고,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러니 칭찬에 익숙해지도록 스스로 훈련이 필요하다.

두 번째, 상사나 동료가 칭찬의 말을 건네면, 유쾌하게 그 칭찬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다”고 말하기를 결심해보자. 칭찬을 받았을 때 정색하면서 탄소리를 하거나 은근슬쩍 말을 돌리고, 어떤 피드백도 없이 가만히 있기만 하면 칭찬을 한 상대방도 답답하고 머쓱할 수 있다. 일단 칭찬을 들었을 때 반사적으로 손사래를 치는 습관이 있다면, 그 행동을 인식하고 잠시 동안이라도 멈춰보자. 그리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이 어색하다면, 눈을 마주치며 웃음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다. 이런 노력이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 것. 누구든 비호감이고 싶은 사람은 없을 테니 말이다.

세 번째, 상사와 동료에게 칭찬을 할 기회를 포착하고 먼저 칭찬을 건네보자. 칭찬은 거창한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다. 직장에서 함께 일하면서 상사나 동료가 보여주는 호의적인 태도, 협업하면서 관찰할 수 있는 업무처리 능력, 사소한 배려와 같이 상대방의 강점을 발견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칭찬할 기회는 많다. 지나가면서 가볍게 한 마디 건넨 것도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칭찬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칭찬을 건넬 수도 있는 법이다.



조금 불편해도 괜찮아! 일회용품 OFF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 버린 일회용품 사용. 전 지구적 환경 오염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일회용품 줄이기는
도전이 아닌 필수항목이 되었다. 올해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군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를 상기하며,
다시 한번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참여해 보자.

글. 전해정

올해 2월, 환경부는 일상 속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운동인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를 시작했다. 공공기관과 기업, 단체 등이 SNS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약속하고 후속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일회용품을 줄여야 하는 이유는 두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다.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규제 현황과 시사점 연구에 따르면, 세계의 일회용품 사용량은 총 2019년 4억 6,000만 톤으로 밝혀졌다. 그중 한국은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

(98.2kg, 출처: 통계청)이 가장 높은 곳으로 집계된 바 있다. 배달 음식을 간편하고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만큼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이 나타난 것.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일회용품 받지 않기로 항목을 선택하거나 가능하면 다회용기를 들고 직접 방문 수령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뿐만 아니라 비닐봉지 대신 에코백 사용하기, 플라스틱 빨대 대신 스테인리스 빨대 사용하기, 플라스틱 칫솔 대신 대나무 칫솔 사용하기 등 일회용품을 줄이는 방법은 다양하다.

우리 모두 함께, 일회용품 OFF



위 내용을 참고해 일상 속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는 게 어떨까요? 일회용품 OFF를 실천하고, 61페이지의 방울이 토퍼를 이용해 인증샷을 보내주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 1만 원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벤트 경품 문화상품권 1만 원권 7명

참여 방법 QR코드를 통해 인증샷 남기기

접수 마감일 11월 20일 **선물 발송일** 12월 10일경

※ 12월 15일까지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은 02-6731-0785로 전화주세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탄소국경조정제도가 2023년 10월부터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무엇을 의미하고, 시행될 경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알아보자.

글. 전해정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란,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탄소 고배출 산업에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말한다. 비교적 환경규제가 약한 EU 역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EU 역내로 수입될 경우 탄소 함유량에 따라 탄소 가격을 부과·징수하게 되는 것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주요 목표는 기후 변화를 완화하고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여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지난 10월, 유럽연합 이사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 법안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2025년 12월까지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 위주의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각 나라에서 저탄소 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그 결과 생산 원가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중심 경제 구조인 한국의 경우에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으로 인해 주요 수출품인 철강, 암모니아, 수소, 알루미늄 등의 업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국내 배출권 가격을 유럽 배출권 가격에 서서히 맞춰 나가거나 저탄소 산업 구조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눈에 보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요

개요	한국 수출액	시행						
유럽연합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역내 수입품에 일종의 관세를 부과함	철강 43억 달러, 알루미늄 5억 달러, 비료 480만 달러 등 <small>*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기준</small>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2026 ~ 2034년 단계적 적용) <small>* 수출품의 제조 과정에서 EU 기준을 초과하는 탄소 배출량에 대해 배출권 구매 의무화(탄소세 부과)</small>						
대상품목	전환기간							
<table border="1"> <tr> <td>철강</td> <td>시멘트</td> <td>전력</td> </tr> <tr> <td>알루미늄</td> <td>비료</td> <td>수소</td> </tr> </table>	철강	시멘트	전력	알루미늄	비료	수소	2023년 10월 1일~2025년 12월 31일 <small>* 6개 품목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small>	
철강	시멘트	전력						
알루미늄	비료	수소						

K-water 창립 56주년

水능 이벤트에 참여하고 선물 받아 가세요!

K-water가 올해 창립 5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물관리와 국민 물복지 실현, 첨단전략산업 및 하이테크기업에 최적의 용수공급을 비롯한 고부가가치의 물산업 육성과 녹색산업 수출 지원 등에 이르기까지 K-water는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재도약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창립 기념 퀴즈 이벤트를 통해 K-water와 더 가까워져 볼까요? 이벤트에 참여하고 푸짐한 경품에도 응모해 보세요!

Hint. 모든 답은 올해 발행된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을 꼼꼼히 보면 맞출 수 있어요~

Quiz1

K-water는 올해 창립 5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K-water의 창립기념일은 며칠일까요?

- ①1월 1일 ②5월 5일 ③8월 15일 ④11월 16일 ⑤12월 25일

Quiz2

수도권에 용수 및 에너지 공급, 재해 방지 등에 큰 역할을 해온 소양강댐에게
올해 10월은 특별한 달이었습니다. 소양강댐은 올해 준공 몇 주년을 맞이했을까요?

- ①1주년 ②10주년 ③50주년 ④100주년 ⑤150주년

Quiz3

K-water는 수돗물 생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기술을
실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산한 수돗물을 뭐라고 부를까요?

- ①저세상 수돗물 ②저칼로리 수돗물 ③저용량 수돗물 ④저지대 수돗물 ⑤저탄소 수돗물

Quiz4

K-water 사내동호회는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지면을 통해 다양한 운동 노하우를 알려 주고 있습니다. 다음 중 올해 '두잇두잇' 칼럼에 등장하지 않은 동호회는 무엇일까요?

- ① 농구부 ② 헬스부 ③ 배드민턴부 ④ 축구부 ⑤ 주말부부

Quiz5

K-water는 전쟁으로 다수의 인프라이가 손실된 이 나라의 도시 재건 협력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 ① 우크라이나 ② 우간다 ③ 우루과이 ④ 우즈베키스탄 ⑤ 오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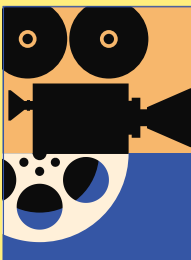


Quiz6

K-water의 마스코트인 캐릭터 이름은 무엇일까요?



- ① 방울꽃 ② 방울토마토 ③ 방울뱀 ④ 방울끈 ⑤ 방울이



경품 영화 관람권 10명 (1인2매 증정) 응모 방법 QR코드 인식 후 정답 입력
접수 마감일 11월 20일 발송일 12월 10일경

※ 12월 15일까지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은 02-6731-0785로 전화주세요.



창립기념퀴즈
바로가기



소양강댐 50쇼에 어서오십쇼!

소양강댐 준공 50주년을 맞아 서울과 춘천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초석이 된 소양강댐의 과거, 현재, 미래를 풍성한 이벤트와 볼거리를 통해 되돌아볼 수 있었던 현장 속으로 들어가보자.

글. 구지희 사진. 김은주

FOCUS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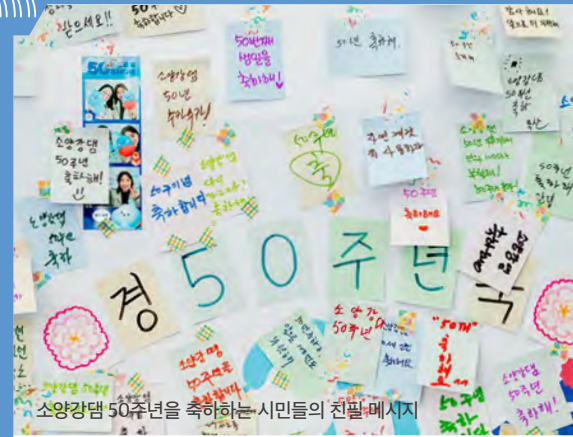


소양강댐 50주년을 알리는 국민 소통행사

K-water가 소양강댐 준공 50주년을 맞아 서울과 춘천에서 릴레이 국민 소통 행사를 진행했다. 서울에서는 지난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춘천에서는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개최되어 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연이은 휴일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청계천 광장을 찾은 시민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소양강댐의 역사와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시민들은 행사에 참여해 곳곳에 전시된 소양강댐의 역사와 성과, 수월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등을 보며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만들기 위한 K-water의 노력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아울러 서울 용산과 춘천 구간을 오가는 소양강댐 50주년 기념 ITX충춘 랩핑 열차가 11월까지 운영되어, 시민들의 여행 중 더욱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청계천에서 만나는 소양강댐의 모든 것

10월 9일, 릴레이 국민 소통 행사의 시작을 알린 서울 청계천 광장 행사장에는 소양강댐의 역사와 현재, 미래, 비전을 미래를 한 눈에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체험거리가 준비되었다. '소양강댐 전시 부스'와 OX 퀴즈가 있는 '체험 부스', 50주년 축하 메시지를 전하는 '기념 파티 부스', 방울이와 사진을 남길 수 있는 '방울세킷 포토부스' 등이 마련되어 오가는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각 부스에서 활동 참여를 증명하는 세 가지 도장을 모두 획득하면 방울이 굿즈 경품 추첨에 참여할 수 있다. 귀여운 방울이 캐릭터가 그려진 굿즈 추첨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참여해 인산인해를 이뤘다. 또한 10월 9일에는 특별히 가수 경서의 축하 버스킹이 열리는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준비되었다. 행사장 한가운데는 5m 크기의 K-water 마스코트 '방울이' 조형물이 시민들을 맞이해 행사장의 랜드마크이자 포토존으로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소양강댐 50주년을 축하하는 시민들의 진심 메시지



본인의 모습을 찾아 가르키고 있는 시민 참여자

MINI INTERVIEW



왕선, 정성애, 왕민주 가족

“경품으로 예쁜 담요를 받았고요. 행사를 통해 소양강댐이 무척 오래 전에 지어졌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대단한 저수용량에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소양강댐이 수도권 지역의 식수를 책임졌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조진영, 임성연, 임윤서, 임지오 가족

“‘방울세킷 포토부스’가 특히 즐거웠습니다. 소양강댐은 놀러가기 좋은 곳으로만 생각했는데 국내 최대 다목적댐이라는 걸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어요. 정말 유익하고 즐거운 행사였습니다!”






이흥경, 김경식 가족

“1975년도 20살이 되던 해, 소양강댐에 동네 친구들과 모여 놀러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그 사진이 아직도 남아 있답니다. 추억이 깃들여 있는 소양강댐인데, 이런 행사가 있어서 무척 반갑고 좋았습니다.”



고도정수처리용 활성탄 국가비축 협력을 위한 환경부 · 조달청 · K-water 업무협약식

일시 : 2023. 10. 17 (화) 장소 : K-water 본관 5층 대회의실 협약기관 :  환경부  조달청  K-water



FOCUS 2

활성탄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힘을 모으다

K-water가 고도정수처리에 사용되는 활성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부 및 조달청과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글_김영은 자료_K-water



긴급수급조절물자, 활성탄

활성탄이란, 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에서 수돗물을 만들 때 최종 여과 과정에서 사용되는 물질이다. 활성탄에 있는 미세한 구멍은 수돗물의 냄새 물질 등 미량의 유해 물질을 흡착한다. 활성탄은 석탄, 야자껍질 등을 원료로 탄화 공정(열을 가해 기공을 만듦)과 활성화 과정(수증기를 이용하여 기공을 확대)을 거쳐 생산된 기공이 많은 흑색 물질이다. 활성탄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사용되는 숯과 유사하지만, 숯보다 3배 이상 많은 내부 기공(활성탄 1g의 내부 기공은 1,000m³로 축구장의 약 7분의 1 수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무수 미세기공을 이용하여, 활성탄은 냄새물질과 미량유해물질을 흡착하여 제거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활성탄의 주 원료인 석탄(유연탄)이 생산되지 않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다 보니, 국제정세에 따른 수급 불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7월 마스크, 요소수에 이어 세 번째로 활성탄을 긴급수급조절물자로 지정했다.



안정적 수급을 위한 우리의 노력

K-water는 이러한 수급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도에 활성탄 물량을 비축할 수 있도록 한강 유역에 비축창고 건설을 우선 추진하였다.

또한, 2023년에는 환경부 국고를 지원받아 낙동강 및 금영섬 유역의 지자체 물량을 포함한 활성탄 비축창고를 낙동강 유역에 건설하는 ‘활성탄 국가비축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낙동강유역 활성탄 국가비축시설 구축사업: 낙동강 유역 구미정수장에 비축용량 4,200m³ 규모로 2024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다.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17일 K-water는 환경부 및 조달청과 ‘국내 고도정수처리용 활성탄 국가비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최근 국제 정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활성탄을 선제적으로 비축 가능함에 따라 수돗물 생산의 핵심 수처리제인 활성탄의 안정적 수급체계를 구축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상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K-water News

1



삼성전자와 녹색무역장벽 해소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협약 체결

K-water는 지난 10월 5일, 시화호조력발전소에서 삼성전자와 '녹색무역장벽 해소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K-water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시화호조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직접전력거래(PPA, Power Purchase Agreement)를 통해 삼성전자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녹색무역장벽을 해소하고, 향후 시화호 주변의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공동 참여하는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녹색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과 수출핵심 기업이 재생에너지 공급 협력을 통해 상생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2



2023년 장애인고용 신뢰기업으로 선정

K-water가 지난 10월 4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수여하는 2023년 트루컴퍼니(장애인고용 신뢰기업)에 선정되어 '금상'을 수상했다. 트루컴퍼니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주관으로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한 기업과 기관을 선정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포함하는 제도이다. K-water는 장애인 지원장벽 완화를 위한 채용규정 개선, 전 직원 아이디어 공모를 통한 댐 드론 점검기사, 신재생에너지 지킴이, 문헌관리원 등과 같은 장애인 적합 직무 신규 발굴 등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해 전개해온 지속적인 노력을 높게 평가받았다.

3



200년 역사 영국토목학회(ICE) '물관리 부문상' 국내 최초 수상

K-water가 지난 10월 13일,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대강당에서 영국토목학회 주관하는 '2023년 Chris Binnie Award'에 참여해, 국내 최초로 지속가능한 물관리 분야 상을 받았다. 크리스 비니 상은 영국토목학회가 지속가능한 물관리 부문에서 인류와 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해 우수성을 인정받고 사회 기여도가 높은 기관에 수여하는 상이다. K-water는 시화호 조력발전을 포함해 물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등 친환경 녹색 프로젝트의 추진과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시행함으로써, 인류와 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점 등을 높게 평가받았다.

4



유엔총회의장협의회와 글로벌 물문제 해결 논의

K-water는 지난 10월 18일, 유엔총회의장협의회 20여 명을 초청해 아라뱃길에서 글로벌 물문제를 논의하는 특별 행사를 개최했다. 유엔총회의장협의회는 유엔의 평화, 안보, 개발 등과 관련한 중요한 국제 이슈를 다루는 전·현직 유엔 총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다. K-water는 유엔 총회 의장들과 아라뱃길을 둘러보며, 대한민국 물관리의 역사적 발자취부터 K-water의 디지털 물관리 기술에 대한 우수성에 관해 설명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디지털트윈, 인공지능 정수장, 스마트시티와 같은 최신 기술에 큰 관심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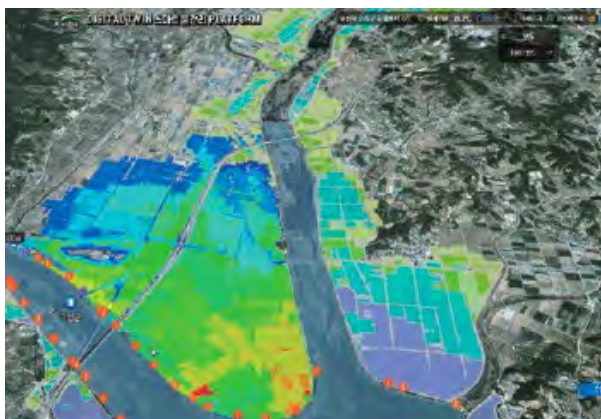
5



네이버(주)와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계약(PPA) 체결

K-water는 지난 10월 25일, 전북 진안의 용담댐에 위치한 용담제2수력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네이버1784(네이버 본사 사옥)에서 사용하는 직접전력거래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했다. PPA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과 재생에너지 전기가 필요한 기업이 직접 전력을 거래하는 방식을 말한다. 기업의 입장에서 요금 변동 없이 재생에너지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효율적이다. 용담제2수력의 연간 발전량은 13GWh으로 네이버(주)에 전량 공급함으로써 매년 온실가스 6,000톤을 저감할 수 있다.

6



사우디아라비아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운영 사업 참여

K-water와 네이버(주)의 디지털 트윈 기술력을 활용하여 사우디 디지털 대전환 사업인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운영 사업'에 진출한다. 이번 사업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5대 도시의 홍수대응과 도시과제, 도시계획 부문에 참여하는 프로젝트다. 이 중 K-water는 사우디 제2도시인 제다시의 홍수 대응에 참여한다. 이를 통해 K-water는 민간·공공간의 기술 협력을 기반으로 디지털 플랫폼 부문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사업 참여 이후 중동지역 후속 사업 참여 여건 마련 등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화

플라워 킬링 문

감독 | 마틴 스코세지
개봉 | 10월 19일



1920년대 오클라호마를 덮친 인디언 살인사건. 이를 수사하기 위한 FBI 요원들의 사투를 한 편의 영화로 담았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플라워 킬링 문>은 할리우드 범죄 영화의 거장 마틴 스코세지 감독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합작으로 재탄생했다.

폴리처상과 토니상 베스트 뮤지컬상을 동시 석권한 전설의 그 뮤지컬, <렌트>가 돌아온다! 푸치니의 오페라 '라 보엠'을 현대화한 작품으로 1996년 초연부터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명작. 가난하지만 열정 가득한 젊은 예술가들이 전하는 희망을 만나보고 싶다면 뮤지컬 렌트를 관람해보자.

렌트

기간 | 11월 11일 ~ 2024년 2월 25일
장소 | 코엑스 신한카드 artium

뮤지컬



전시

오스틴리: 패싱타임

기간 | 12월 31일까지
장소 | 롯데뮤지엄

전통 회화와 현대 과학의 만남! 가상 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전통 회화에 접목시켜 새로운 장르의 예술을 선보이는 오스틴 리가 한국에 상륙했다. 고전 작품에 개성을 입힌 작품부터 온전히 오스틴 리만의 색깔로 채운 작품들까지, 그가 한국에 전하는 위로와 희망을 찾아가 보자.

지친 하루 끝, 시원한 맥주 한 잔의 소확행. 그런데 내가 누리는 이 소확행의 맥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술알못들도 즐길 수 있는 '브루어리 탐험대'를 통해 양조장을 방문해보고 맛있는 맥주도 종류별로 즐겨보자.

브루어리 탐험대 양조장 투어

기간 | 11월 25일까지
장소 | 부산 톨브로이, 프라하993

축제



수놓은 문화 속으로

유독 짧게 느껴지는 가을이
아쉬운 지금, 늦가을을 화려하게
수놓은 문화 라인업.

글. 문수민

2023 K-water 혁신Week

꿈꾸고, 변화하고, 혁신하라
Dream, Change, Innovate!

혁신챌린지

▶ 메인행사

2023. 10. 30.(월) 14:00 ~ 16:30
혁신챌린지 우수과제 최종경연(10건)

▶ 특별 이벤트

2023. 10. 30.(월) ~ 11. 6.(월)

성과전시 [세종관 로비 · 혁신로드]
- K-water “혁신의 역사 ~ 오늘”

참여Event [세종관 로비 · 온라인]
- “혁신 금고를 열어라”, “우리 혁신 화이팅”

디지털빅데이터·AI챌린지

▶ 메인행사

2023. 11. 14.(화) 14:00 ~ 17:30
빅데이터 우수과제 최종경연(6건)

▶ 특별 이벤트

2023. 11. 7.(화) ~ 11. 14.(화)
성과전시 [세종관 로비 전시관]

참여Event [온라인]
“빅데이터 우수과제 댓글 응원”

2023. 11. 14.(화) 16:20
초청강연 [네이버 AI Tech 김필수 리더]
“AI·데이터를 활용한 일상생활의 변화”

테크Bridge챌린지

▶ 메인행사

2023. 11. 22.(수) 13:30 ~ 18:00
K-water 기술개발 우수성과(7건)
개방형 R&D · 중소기업 우수성과(7건)

▶ 특별 이벤트

2023. 11. 15.(수) ~ 11. 22.(수)
성과전시 [세종관 로비 전시관]

2023. 11. 22.(수) 14:00
초청강연
[물리학자 김상욱] “물의 과학”

전직원 참여 Event 및 오아시스 실시간 방송 Live

2023. 10. 30.(월) ~ 11. 22.(수)
본사 세종관 50주년 기념홀



축하합니다

<물, 자연 그리고 사람> 10월호 이벤트 당첨자 안내

10월호 '쓰레기 OFF' 챌린지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첨을 통해 선정된 정성 가득한 작품을 소개합니다.

11월호 '일회용품 OFF' 챌린지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오유 (010-****-6048)



정O서 (010-****-8024)



김O빈 (010-****-0151)



황O성 (010-****-1463)



임O환 (010-****-8520)



박O호 (010-****-6323)



임O섭 (010-****-2111)

#kwater소양강담희망의미래로 좋아요 이벤트 당첨자 발표

이벤트 경품 커피 음료 기프티콘 10명

- @shin369999 | @sonamookim
- @tj_gamsung_home | @namgwau2479
- @bhj10058 | @blisso | @hunny8285
- @travelydn | @asoen0310 | @angella.ppp

소양강담 준공 50주년 OX퀴즈 당첨자 발표(정답: O/O/X)

이벤트 경품 커피 음료 기프티콘 10명

- | | |
|-------------------|-------------------|
| 박O경 010-****-6705 | 정O서 010-****-8024 |
| 박O정 010-****-6321 | 박O미 010-****-1839 |
| 홍O희 010-****-2975 | 김O선 010-****-9811 |
| 김O남 010-****-5413 | 안O현 010-****-9115 |
| 한O미 010-****-3236 | 박O호 010-****-6323 |

웹진에 숨은 방울이를 찾아라 당첨자 발표

이벤트 경품 커피 음료 기프티콘 10명

- | | |
|-------------------|-------------------|
| 이O영 010-****-1122 | 이O유 010-****-6048 |
| 박O정 010-****-6321 | 정O서 010-****-8024 |
| 고O주 010-****-6090 | 강O은 010-****-2527 |
| 양O신 010-****-1353 | 최O옥 010-****-7752 |
| 박O혜 010-****-3654 | 박O오 010-****-1885 |




이벤트 선물 발송일 11월 10일경

※ 11월 15일까지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은 02-6731-0785로 전화주세요.

방울이와 함께 하는 일회용품 OFF 챌린지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일상 속 일회용품 사용. 종이컵, 빨대, 플라스틱 그릇 등 일회용품을 줄이고
다회용품을 사용하면서 보다 나은 지구를 위한 발걸음에 동참해 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일회용품 OFF**
48페이지의 '오프챌린지' 내용을 참고해 일상 속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는 게 어떨까요? 일회용품 OFF를 실천하고, 위의 방울이 토퍼를 이용해 인증샷을 보내주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 1만 원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벤트 경품 문화상품권 1만 원권 7명
참여 방법 QR코드를 통해 인증샷 남기기
접수 마감일 11월 20일 **발송일** 12월 10일경
※ 12월 15일까지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은 02-6731-0785로 전화주세요.





Better Things!

K-water와 #소통하기

SNS 오프나
지금 바로 만나기!



매달 더욱 알차고 다채로운 소식으로 꾸며지는 K-water SNS로 놀러오세요!



유튜브 www.youtube.com/kwatertv

비 내리는 낙동강 🌧️ | 우중캠핑 | 솔로캠핑 | 낭만캠핑 |
빛소리 ASMR 🎧 [K-water X @picnicamp4534]

K-water가 준비한 한국의 강줄기 따라 캠핑하기 세 번째 여정은 낙동강인데요!
낭만 가득한 우중캠핑 속 비에 젖은 꽃내음 가득한 캠핑 ASMR로 분주한 하루를
쉬어보세요.

#캠핑 #낙동강 #가을캠핑 #우중캠핑 #camping #피크닉캠프 #캠핑꿀팁 #솔로캠핑 #이벤트

블로그 blog.naver.com/ilovekwater



정보가 방울방울

가을철 기력 보충을 위한
보양 음식 추천

트위터 twitter.com/kwater_tweet



너 내 도도독..
애니 동료가 돼라

#피어나 #내동료가돼라 #도도독 #패러디

페이스북 www.facebook.com/kwaterworld



지구를 위한 일상 속 작은 실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종이 박스를 재활용해
책갈피로 재탄생 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이일제로웨이스트 #업사이클링 #종이박스 #책갈피 #DIY



정보가 방울방울

단풍은 왜 빨강게 물드는 걸까?
색깔이 바뀌는 이유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kwater_official



K-water의 마스크티이자 천의 얼굴인 방울이의 화려한 변신!!



#방울이표공정팔
#긍정의힘아숫아라



#네컷만화 #방울네컷
#K-직장인공감



#늦지않았어 #잘자
#꿀잠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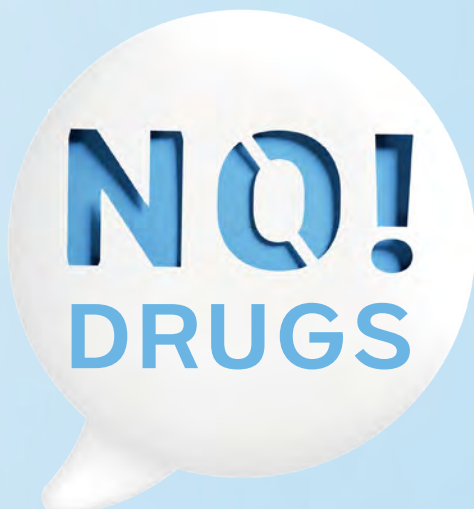
#스트리트방울파이터
#브레이크없는방울이
#어차피우승은방울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나갑니다

소리 없이 스며들고 있는 마약으로부터
소중한 사람, 행복한 일상을 지킵니다.

강력한 마약 단속,
재활과 치료, 예방교육을 통한
마약청정국으로의 힘찬 도약!
법무부가 함께 합니다.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을
카카오톡으로 만나보세요.